

# “산행이란 글자에 점하나만 빼면 실행”

## 전국불교산악인련, 보성 일림산서 합동산행법회

초록의 산 빛에 철쭉꽃이 춤을 했다. 산악불심도 보라색 꽃 빛에 넘실댔다. 전남 보성 일림산 해발 667m 정상. 산은 조건 없이 화엄장(華嚴藏) 세계를 내어보였다. 드넓은 남해 바다. 시원한 바람결. 부드러운 능선... 그대로 산악불심에게 극락세계를 선보였다.

5월 14일, 불자산악인들이 산에 올랐다. 합동산행과 산상(山上)법회를 갖기 위해서 뭉친 것. 일림산 초입은 아침부터 인근 광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안산 양산 마산 창원 등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양춘동) 산하 9개 지방산악회원 5백여 명으로 북적였다.

말(말)이 산을 탄다고 해야 할까? 계속 입구가 사투리의 향연으로 들쭉거렸다. 서울말,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제각기 말투와 억양은 다르지만, 산에 오를 설렘에 불자산악인들의 얘기 보따리가 술술 풀려졌다. 한데 섞인 정겨운 사투리가 웃음꽃으로 피어났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서 500여명 운집

“날씨가 좋죠요? 어저께 비가 왔는데요?”  
“비가 왔었는데요? 오늘 날씨가 좋은 걸 보니, 부처님 덕분인 것 같네요.”

일림산을 4시간 동안 종주하는 산행은 지방산악회별로 출발했다. 광주불교산악회가 길을 안내하고, 곧장 서울 부산 대구·경북산악회가 뒤를 따라갔다. 좁게 열린 산길을 종종 걸음으로 오르는 모습이 마치 안행(雁行)과 비슷했다. 산행! 불자산악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광주불교산악회 정대석(47) 사무국장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우행가 가사처럼 ‘산’이란 글자에 점 하나만 빼면, ‘실행’이 되잖아. 한발 한발 내딛으면서 산을 오르면, 험덕거리는 내 숨을 알아차리게 되지라. 그 때이 번뇌방랑

에 지든 내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지용. 이거이 머시당가? 바로 불자산악인이 산을 오르는 이유랍시용.”

산행은 실행과 닮았다. 산을 오르는 일은 불자의 길과 같다. 힘겹게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 보이지만, 결국 그 자리가 본래 있는 곳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행행 본처 지지발제(行行本處 至至發處)’. 가는 데마다 본래 자리, 이르는 데마다 출발지’란 이치를 이날 산행에서 느껴 보는 것이다.

### “험덕거리는 내 숨 알아차리게 되지라”

산 중턱에나 올랐을까?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정상이 손에 잡혔다. 하지만 정상은 멀었다. 손에 잡힐 듯 보이는데, 아무리 가도 쉽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과 가는 것은 전혀 달랐다. 가까이 보인다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산은 그렇게 쉽게 정상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상하지예. 산은 걸음으로 순한 양 같지만도 속은 ‘음흉’하지예. 마치 선문답을 하는 선승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떠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알음알이로 실행한다고 대들었다간 큰 코 다치지예. 산행도 마찬가지로.”

양산불교산악회 이영희씨(50) 말이 지친 발걸음에 채찍이 됐다. 분심이 솟았다.

### 파란 하늘 후불탱화 삼아 산상서 법회

그렇게 오른 일림산 정상. 누가 뭐라 할 것이 ‘야호~야호~’ 환호성을 질렀다. 산은 정지하게 메아리로 회답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회원들은 산상법회(山上法會)를 봉행했다. 힘겹게 오른 산 정상에서 여는 법회. 파란 하늘은 후불탱화가 되고, 넓은 바위는 불단이 돼 줬다. 산악회원들이 봉독하는 <반야심경>은 ‘금강의 메아리’가 돼 온 산을 휘감고 돌아왔다. 법열이 느껴졌다.



보랏빛 철쭉 꽃길로 산악불심이 산을 오르고 있다. 멀리 보이는 남해 바다가 눈에 시원하게 들어온다.

산상법회가 끝나고 회원들은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공양을 하고, 법담을 나누는 시간이 가졌다. “말 그대로 야단법석인 셈이지요. ‘짧지만 여운이 긴’ 법회. 우리 불자산악인들이 매일 산상에서 법회를 통해 신심을 이렇게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불교산악회 권운기(44) 회장은 산악회를 이렇게 소개했다. 산을 사랑하다 못해 산에 ‘미쳐버린’ 사람들. 산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전국 곳곳에 ‘붓다의 메아리’를 전하고 있는 실행단체다.

산상법회를 끝내고 불자산악회들은 발길을 산 밑으로 향했다. 깨달음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처럼, 산행도 정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내려가는 것. 오름과 내려감을 통해 진정한 산행은 완성된다.

### 산 정상서 울리는 ‘붓다의 메아리’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양춘동 총재는 “산을 오르 내리는 걸음걸음에서 바로 산악불심의 실행이 시작되고 끝이 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산행과 산상법회는 불자산악인들이 신심을 키우는데 지름길이자 실행방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9곳 지방산악회 합동산행법회를 계기로, 올 가을에 특별한 산행을 갖는다. 9개 대천지의 불교산악회와 함께 산에 오르며 전국의 산악불심을 한데 모으려는 것. 이를 통해 그간 영호남 불자산악회의 친목도모는 물론, 충청도, 경기도 등의 불자산악회들과도 화합을 다질 요량이다.

또 최근 창립된 안산불교산악회가 주축이 돼 ‘외국인 이주노동자 초청 합동산행법회’도 봉행할 예정이다. 지역과 인종간 벽을 허물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서다.

글·사진/전남 보성=김철우 기자



전남 보성 일림산 정상에서 산상법회를 마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원들이 손을 흔들며 법우애를 나누고 있다.

## 일터가 도량입니다

### “4년째 무료투약 봉사활동”

불자약사보리회원 박란희 약사

불교를 믿고 실천한다는 것. 당연했고 자연스러웠다. 일부러 믿는다고 생각한 적 없고, 역지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있는 그대로’ 보고 행동으로 옮겼다. 약국 손님들이 까탈 부리고 때로는 무례해도, 약을 찾는 손님의 간절한 그 마음만을 보고 헤아렸다.

그대서일까? 서울 서대문구 흥민약국 박란희 약사(48·법성도는 약국 생활 24년에서 불교가 ‘마냥’ 재밌고, ‘그냥’ 좋았다. 매일 아침 8시

와 노숙자, 오갈 데 없는 노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상담, 건강 체크, 수치침, 문진도 병행한다. 하지만 박 약사에게도 일에서 겪는 갈등은 있었다. 자부심이 대단했던 박 약사는 ‘내가 어디가 아프니, 이 약 달라’며 일방적으로 약을 주문하는 손님의 태도에 깊은 자괴감에 빠지곤 했다. ‘그래도 내가 약사인 데...’ 도저히 용납도 이해도 할 수 없었다.

“그만 두고 싶었지요. 환자의 병세에 맞게 약을 지어주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실망감에 밤잠을 설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부처님 말씀이 푹 떠올랐어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이었지요.”

약사로서 가졌던 자만심, 결국 문제는 환자 중심의 약을 짓지 않았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은 박 약사는 곧장 마음을 고쳐먹었다. 환자 스스로 몸을 아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그대로 헤아리면서, 높고 크기만 했던 아성을 조금씩 녹여냈다.

13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천수경> 1독, 진언염송 등 30분씩 올리는 약국에서의 아침예불을 통해서였다.

“불상만 있지 이 약국이 제겐 법당이나 다름없죠. 천수경 한 번 읽고, ‘올마니반메출’을 10분간 염송하고... 또 수시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통해 수행에서 겪는 경계들도 만나게 되고요.”

약국은 끊임없이 손님들이 들고 나갔다. 수많은 손님들과 박 약사 사이에서 오가는 말과 행동에 거슬림이 없었다. 부딪침 없이 물 흐르듯 조제상 담이 이어진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 약사는 손님이 원하는 마음 그대로를 읽어낸다. 20년 넘게 불자약사로서 그렸던 것처럼, 박 약사의 낯빛은 편안한 마음자리를 내어 보이는 약사보살의 얼굴빛이었다.

글·사진=김철우 기자



약사여래 부처님을 닮고자 실행하는 박란희 불자.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다.

##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澗澗 지음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르다” (감탄하시었다)

한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폐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리므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 원인을 통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물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떠한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